Text by Tom Morton

카렌 루소

막힌 곳을 찾기 위해 주로 이용되는 소형 로봇카메라를 이용해 영국 에섹스의 하수구를 촬영한 카렌 루소의 〈과잉의 경제〉는 마치 생기 넘치는 심장을 순환하는 피나 비교의 교리처럼, 자본주의 사회의 배설물이 순환하는 지하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러한 매혹적인 여행을 통해, 우리는 자연광의 탁월한 효과와 마치 연금술적 변화가 가해진 듯 빛나는 금을 연상시키는 하수구 벽에 달라붙은 지방 찌꺼기의 기이하게 아름답지만 불안한 모습과 만나게 된다. 작품은 세속적인 것과 숭고한 것 사이의 경계에 서 있으며, 인간의 삶이 배설물과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에 이르는 길이자, 심지어 재탄생의 형태에 이르는 길임을 암시한다. 〈과잉의 경제〉는 작가의 최근 사진작업인 〈땅굴 파는 사람〉과는 달리 유용하게 해석될 수 있다. 이 사진작업은 윌리엄 리틀이라는 사람이 런던에 있는 자신의 집 지하를 불법적으로 굴착한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카렌 루소에게 있어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기능적인 가치도 갖지 않는 예술적 생산 활동에 다름 아니며, 생물학적 생존의 확대가 아닌 타올라 소진되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 T.M.

Karen RUSSO

Shot inside a sewer system in Essex, U.K., by a small robot camera usually employed to locate blockages, Karen Russo's video *The Economy of Excess* (2005) takes us into a subterranean world in which the waste of Capitalist society circulates like blood through a vital, hidden heart, or the teachings of a hidden sect. On this hypnotizing journey, we encounter extraordinary natural light effects, and the disquieting, although oddly beautiful, sight of excreted fat clinging to the sewer walls, its surface recalling burnished gold, as though it has undergone an alchemical transformation. Straddling the mundane and the sublime, the work suggests that to accept that human life is composed of both shit and stardust is a path to wisdom, even a form of rebirth. *The Economy of Excess* may be usefully read against the artist's recent photographic project, *Mole Man* (2007-8), which records the tunnel complex illegally excavated by William Little underneath his East London home. This obsessive undertaking has, for Russo, a parallel in artistic production-an activity that has no functional value, save perhaps for flaring off energy not expended on our biological survival.

- T.M.

과잉의 경제
2005
DVD 영사
9분
아르케부스 갤러리, 드비르 갤러리 소장

Economy of Excess
2005
DVD projection
09'
courtesy of Arqaebuse Gallery and Dvir Gallery